

‘열전 4일’ 전국소년체전...광주 61·전남 89개 메달 목표

25~28일 목포 중심 전남 일대 개최...36개 종목 1만8757명 참가
전남, 바둑 최지우·악지우 3연패 도전...육상·레슬링 등 입상 기대
광주, 검도 남자 12세 이하 선발전 4연패·수피아여중 농구 3연패 도전

체육 꿈나무들의 대축제인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일대에서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 1만 8757명(선수 1만 2153명, 임원 6604명)의 선수단은 총 36개 종목에서 열전을 펼친다.

전남에서는 총 1225명(선수 768명, 임원 457명)의 선수단이 35개 종목에 참가한다.

전남은 강세종목으로 분석되는 육상, 역도, 자전거 등 기록종목과 태권도, 레슬링, 검도 등 대진종목에서 상위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76개보다 13개 많은 89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51·52회 대회에서 각각 육상 여중부 400m와 바둑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지우(구례여중 3년)와 악지우(한국바둑중 3년)가 이번 대회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 소년체전 3연패를 노린다.

또한 지난해 대회 역도에서 2관왕(인상, 합계)을 차지한 김태양(완도중 3년)은 이번 대회에서 인상, 융상, 합계 3관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우리도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총 1034명(선수 641명, 임원 393명)이 소년체전에 참가해 요트, 철인 3종, 카누를 제외한 33개 종목에 나선다.

광주는 총 56개의 메달을 획득했던 지난해 대회와 비교해 단체 및 개인대진 종목의 전력이 향상됨에 따라 5개의 메달을 더 획득해 총 61개의 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레슬링 남자 15세 이하부 F80kg 김수형(광주체중 2년)과 태권도 남자 12세 이하부 박서완(금부초 6년)이 금메달에 도전한다.

역도 +81kg급에 출전하는 이다은(광주체중 3년)은 인상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근대3종 이지아(광주체중 3년)는 개인전과 릴레이에서 대회 2관왕을 노린다.



전남체육회장은 "자긍심을 갖고 맘껏 노력해낸 만큼 최선을 다해 목표한 바를 이루기 바란다"며 광주선수단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형제, 자매, 쌍둥이 선수들의 출전도 눈길을 끈다.

레슬링에서는 심석무(함평중 2년·그레코로만형 92kg)와 심량률(함평중 1년·자유형 92kg) 형제가 출전한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소년체전 농구 종목에서 수피아여중이 우승한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쌍둥이’ 조준호와 조준혁(이상 삼계중 3년)은 사격 공기권총 종목에, 정무나와 정무비(이상 광양중앙초 6년)는 축구 여초부에 나선다.

배구에서는 세 쌍둥이인 마정빈(문정초 6년·남초부), 마서진·마서빈(이상 지평초 6년·여초부)이 단체전에 출전한다.

한편, 광주-전남 선수단은 개막에 앞서 사전경기로 치러진 기계체조 종목에서 금빛 활약을 선보이

며 기분 좋은 소년체전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 12일 영암삼호종합문화센터에서 열린 기계체조 사전경기에서 전남체중 김민형(3년)은 남자 15세 이하부 철봉에서 사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

경양초 홍석류(6년)와 광주체중 송재연(2년)은 각각 여자 12세 이하부 마루, 여자 15세 이하부 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김민철 조선대 교수, U-20 남자배구대표팀 단장 선임

7월 23일 아시아청소년남자 선수권배구대회 참가

김민철(사진)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가 2024한국청소년남자배구대표팀 단장에 선임됐다.

김 교수는 남자U-20 선수단을 이끌고 오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개최되는 2024아시아청소년남자U-20선수권배구대회에 참가한다.

단장으로 선임된 김 교수는 "감독·코치진·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경기 내외적 요소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내 역할인 것 같다"며 "아직 이르지 못한 목표는 아시아권 우승이다. 일차적으로 아시아 선수권에서 4강 안에 들어 세계 대회 출전권까지 따내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대표팀에서 '사령탑'으로 함께하

게 된 김장민 감독을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냈다. 수원 수성고 배구팀을 이끄는 김 감독은 2023국제배구연맹 세계남자유소년선수권대회(U-19) 감독을 맡아 30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김장민 감독을 중심으로 조직력 있는 배구를 보여줄 계획이다. 선수들의 신장에서 열세적인 부분이 있지만 범실없는 플레이, 강한 서브를 위한 연습량을 늘려 약점을 상쇄하려 한다"고 이야기했다.

청소년 대표팀 단장으로 임명된 남자배구 발전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다짐한 그는 지역 배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드러냈다.

KBS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김민철 교수는 광주지역배구단 유치 추진단 구성원으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의 탄생에도 기여했다.

그는 "최근 페퍼스가 아시아쿼터나 외국인 트라이아웃 등을 통해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한 것은 스포츠브릿지 기간 중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며 "손 꼽히는 미들블록이었던 장소연 감독의 선임 역시 그간 페퍼스의 취약점이었던 중앙 보강과 전술,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교수는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이사, 한국사회체육학회 및 한국체육학회 이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세계 1위’ 조코비치, 37번째 생일날 ATP투어 ‘1100승’ 자축

코너스·페더러 이어 역대 3번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사진)가 생일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1100번째 승리를 달성하며 곁경사를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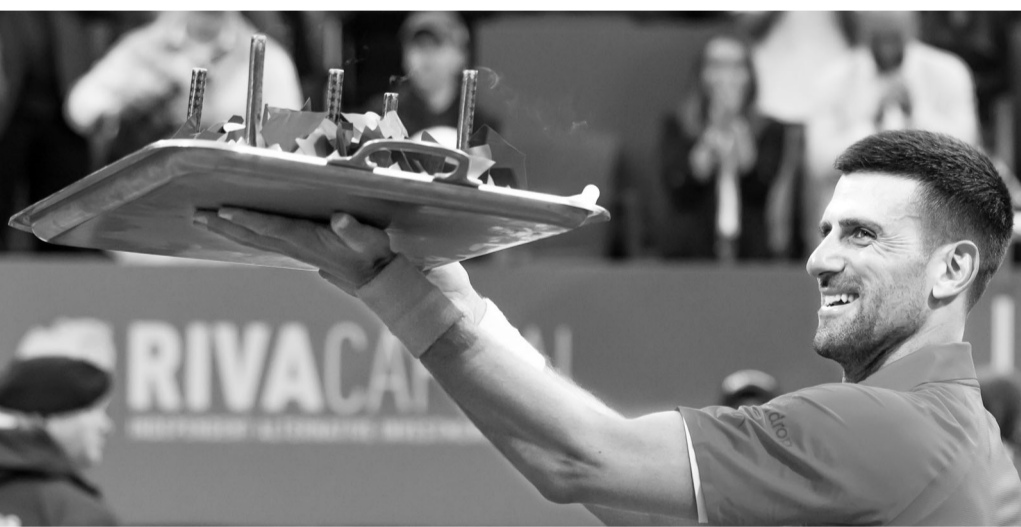
조코비치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오픈(총상금 57만9320 유로) 단식 2회전(16강)에서 야니크 한프만(85위·독일)을 2-0(6-3 6-3)으로 몰리치고 8강에 올랐다.

이날은 1987년생 조코비치의 37번째 생일이었다.

이 승리로 조코비치는 ATP 투어에서 통산 1100승 고지에 오른 역대 3번째 선수가 됐다.

앞서 지미 코너스(미국)와 로저 페더러(스위스)가 이 기록을 작성한 바 있다.

경기 뒤 관중들은 조코비치를 위해 생일 축하 '해피 버스데이' (Happy Birthday)를 불렀다. 대회 관계자들이 조코비치에게 초콜릿 생일 케



이크를 선물하기도 했다.

조코비치는 "이기지 못했다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서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조코비치는 26일 개막하는 프랑스오픈에서 통산 2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흠신’ 나달, 붉은 코트서 마지막 서브

프랑스오픈 26일 개막...권순우, 한국 선수로 유일 본선 출전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26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 총상금은 5350만 유로(약 791억원),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한국 돈으로 35억5000만원 정도인 240만 유로다.

프랑스오픈은 4대 메이저 가운데 유일하게 클레이 코트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라파엘 나달(스페인·사진)이다.

나달은 이 대회 남자 단식에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사이에 무려 14번이나 우승한 롤랑가로스의 절대 강자다.

프랑스오픈 통산 전적은 112승 3패로 승률이 무려 97%에 이른다.

나달을 프랑스오픈에서 꺾어낸 선수는 2009년 16강에서 로빈 소더링(은퇴·스웨덴), 2015년 8강과 2021년 4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2명뿐이다.

2016년에는 3회전 경기를 앞두고 나달이 부상 때문에 기권했다.

1986년생 나달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프랑스오픈이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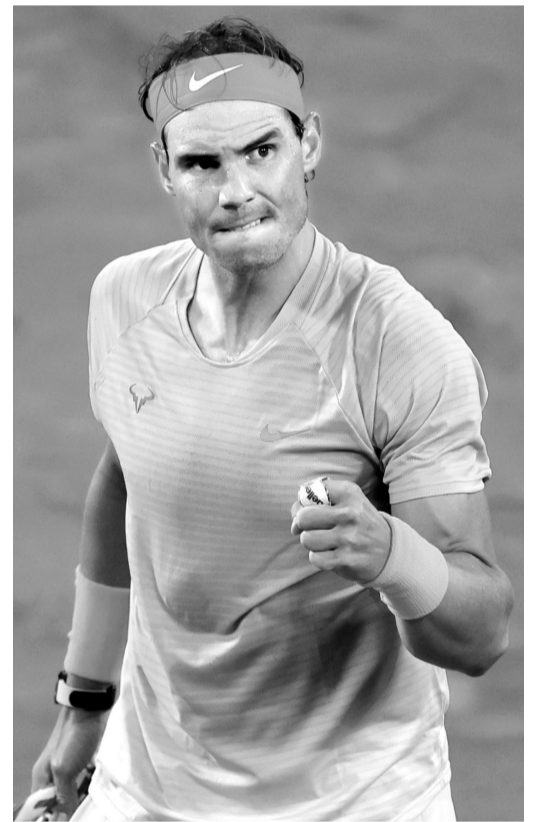
나달이 프랑스오픈에 나오는 것은 2022년 우승 이후 2년 만이다.

2023년에는 1월 호주오픈 2회전 탈락 이후 부상 때문에 1년을 쉬느라 프랑스오픈에不参加했다.

나달은 올해 호주오픈에도 뛰지 못해 지난해 호주오픈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메이저 대회에 모습을 보인다.

올해 1월 호주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을 통해 복귀전을 치른 나달은 다시 다리 근육 부상으로 3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진 끝에 4월 대회 출전을 재개했다.

이후 클레이코트 대회에 세 차례 출전했으나 마



드리드 마스터스 16강이 최고 성적이었다.

현재 세계 랭킹이 276위까지 내려간 나달은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자신의 마지막 프랑스오픈을 우승으로 장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한국 선수로는 권순우(491위)가 부상 공백에 따른 보호 랭킹을 사용해 남자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

홍성천(191위·세종시청)은 남자 단식 예선에 출전했으나 1회전에서 엔조 쿠아코(210위·프랑스)에게 1-2(7-6(9-7) 2-6 1-6)로 역전패했다.

프랑스오픈이 열리는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는 올해 이 대회가 끝나면 7월 파리올림픽 테니스 경기도 개최된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